



2대리구 수성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그림
— + Bernard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2022. 01. 23. (다해) 제2305호

제1독서 느헤 8,2-4·7.5-6.8-10 **화답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제2독서** 1코린 12,12-3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1,1-4; 4,14-21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느님의 말씀



대현본당 주임 | 이영재 바오로 신부

둘이 있을 때 사과 세 개를 나눠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이서 지저분한 방 세 곳을 청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마음이나 욕심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이 세상에 과도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는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모자라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약한 자를 이용해 자기의 것을 더 챙기려는 마음 때문에 굶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악하기만 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선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악으로 여기는 마음 때문에 세상에 상처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프신 것처럼, 내 옆의 사람이 아프면 똑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프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의 사슬에 묶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인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일이 아니라 내 삶과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변화해야 하는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도,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며 생활 속의 쓰레기를 줄여보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억눌린 이에게 자유를 주고, 묶인 이에게 해방을 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

냉장고를 부탁해

교구 문화홍보국

몇 해 전 모 방송에서 게스트 출연자의 집에 있던 냉장고를 그대로 스튜디오로 가져와 그 속에 들어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 대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천덕꾸러기 냉장고 재료들이 품격 있는 요리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집집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오래도록 방치된 식품이나 재료들이 많습니다. 언제 구입했는지도 알 수 없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나버린 인스턴트 식품, 뭔지 모를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부패되고 있는 식재료들, 그리고 뒤죽박죽 칸마다 쌓여있는 여러 반찬들로 냉장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먹을 것이 없다거나 재료가 마땅치 않아 결국 또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서 다시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있었는데도 몰랐던 음식들이 하나 둘 부패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생상태도 나빠지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많아집니다. 또한 사용하는 음식물을 한 번에 찾지 못해 오랫동안 냉장고 문을 열어 두게 됨으로써 에너지는 낭비되고 전기 요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냉장고 하나로부터 오는 생태환경의 위기인 것입니다.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환경 훼손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206항)

바쁜 일상에 요리할 시간이 없다고 간편식이나 배달음식으로 삶의 기술을 잃고 끼니를 때울 것이 아니라 냉장고 정리 정돈으로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요**

냉장고 정리정돈 TIP!

종류별로 정리하기 | 냉장실에 넣을 것과 냉동실에 넣을 것으로 구분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그것들끼리 고기는 고기들끼리 음식 간의 카테고리를 정해 정리합니다.

먹을 분량만큼 소분하기 | 식재료는 그때마다 먹을 만큼의 양으로 소분합니다. 투명용기나 지퍼백을 사용하면 내용물 확인은 물론 공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벨링 또는 메모하기 | 투명용기나 지퍼백에 보관한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쉽도록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필요한 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유통기한과 같은 날짜와 정보를 함께 적는다면 분류와 정리가 더욱 쉬워집니다.

나를 위한 시간,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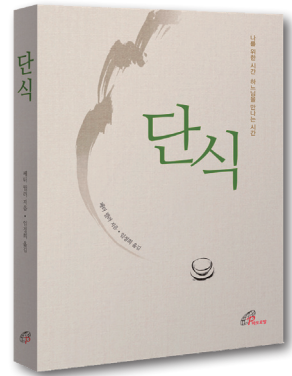


전인적 단식,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임을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울러 교회의 전통에 바탕을 둔 간헐적 단식을 소개하며 몸과 정신, 마음을 통합하는 전인적 의미의 단식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기쁨을 누리도록 제시된 7주간 프로그램에서는 7주 동안 단식을 주제로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과 간단한 묵상, 긴장 완화와 신체 운동, 글과 이야기들을 통해 식별과 신중함을 깨닫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이끌도록 촉구합니다.

성인들의 말씀과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동안 몸과 정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은 하느님 앞에 머무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페터 윌러 지음 |
임정희 옮김 | 264면 |
12,000원 | 바오로딸

현대인을 위한 종말론 강의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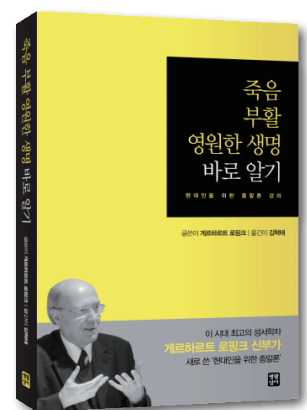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바른 생각

죽음과 부활 그리고 종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최고의 재능인 이성을 근거로 설명하는 ‘현대인을 위한 종말론’.

이 시대 최고의 성서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부는 이 책을 통해 성경과 그리스도 신앙 전통, 위대한 신학자들의 사유와 인간 이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표면적이고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현대인에게 죽음과 부활, 영혼 불멸과 심판, 영원한 생명과 연옥-지옥, 그리고 피조물의 완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오는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를 준비하면서 읽을 책으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세상을 오도하는 그릇된 종교가 득세하는 오늘날에는 올바른 종말론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며 ‘자신이 믿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은 오늘의 신앙인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지음 |
김혁태 옮김 | 416면 |
25,000원 | 생활성서

최조이(崔召吏) 바르바라는 1801년 경기도 여주에서 순교한 최창주 마르첼리노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 신자가 된 그녀는 부친이 순교한 뒤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나 이웃에 대한 열렬한 애덕과 인내는 모든 사람들을 탄복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장성한 뒤 바르바라는 신태보 베드로의 아들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곁에 홀로 남은 탓에 거북하기도 하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코 피로나 슬픔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또 1827년 정해박해 때는 시아버지와 같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도 있었다.

이후 바르바라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집에 얹혀살아야만 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갔고, 미약하나마 시아버지와 다른 죄수들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최조이 바르바라는 전라도 광주에 있던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교우들과 같이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압송된 그녀는 첫 번째 문초와 형벌을 평온한 마음으로 참아 받았다. 그런 다음 감사 앞으로 끌려가자, 1801년에 순교한 최창주의 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고백하였다. 또 ‘자신의 시아버지 신태보는 올 봄에 전주에서 순교하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감사는 바르바라의 고백을 들은 후 “너는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죽음은 제가 바라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저는 그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 다.”라고 대답하였다.



최조이 바르바라
(1790 ~1840년)

바르바라는 이후 조정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올 때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40년 1월 4일(음력 1839년 11월 30일)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50세였다. 그녀의 사형 선고 문 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최조이는 그 부친과 시아버지가 모두 천주교 신자로 홍악한 종자이며,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앙을 믿어 고질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가업으로 여기고, 형벌을 다 반사(茶飯事)로 보니, 이는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무리와 같습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본식(안드레아)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구본식(안드레아, 향년 70세) 신부님께서 지난 1월 14일 (금)에 선종하셨습니다. 1월 17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43. 혼인의 사랑 ⑫

겉으로 커지는 사랑 가정 안에서는 “세 가지 말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입니다.” 적절한 때에 하는 바른 말들은 날마다 사랑을 보호하고 길러 줍니다. 사랑의 가장 특별한 형태인 혼인은 계속 성장되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랑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정한 태도를 훨씬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아낌없이, 더 부드럽게, 더 기쁜 마음으로 보이면서 끊임없는 사랑의 활동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할 때에만 사랑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부어 주시는 하느님 사랑의 선물은 또한 은총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소비주의적 광고가 환상적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기쁨』, 133~135항)

대구주보 말씀 맞히기 정답

1.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2. 해와 달
3.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편리한 인터넷 사용이 오히려 내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 않나 체크해보기

(인터넷중독 자가 진단 체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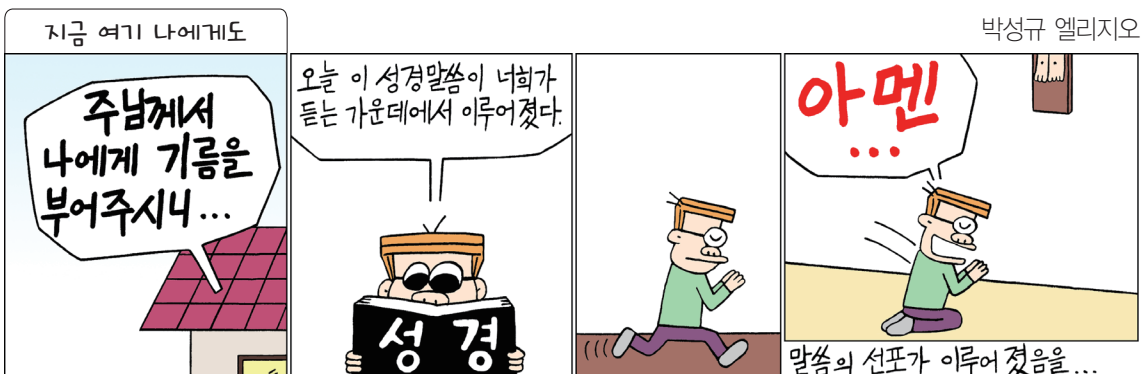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54호 정답

1. 길, 행실, 너희 자신도 모르는 다른 신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2. 10ㄴ, 12
3. ① ② ③
4. ①

지금 여기 나에게도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24일(월) 10:30 범어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1월 25일(화) 19:30 다사성당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4일(월) 11:00 계산성당		1월 26일(수) 10:00 죽도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24일(월) 11:00 도량성당		1월 26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1월 후원회미사	1월 24일(월) 11:00 수성성당	-	-

성소 | 피정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개인 만남 및 상담

대상: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누구나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병자의 날 치유 피정

일자: 2.5(토)

시간: 14:00~17:30

장소: 성령봉사회 월막피정의 집

문의: (010)9045-0191

교육 | 모집

3박 4일 꾸르실료 일정

남성 제272차 2.10(목)~13(일)

대상: 백신접종 완료자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문의: 254-467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6차: 2.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자: 2월 중순~6월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결혼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발견하기

일자: 2.10(매주 목) 19:00~21:00 6주간

강사: 최성옥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수)

회비: 12만원(부부 20만원)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2022 대구베네딕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개강: 일반_3.2(수), 8(화) / 심화_3.7(월)

일반: 모세오경 (수)10:00, (화)19:30

심화: 복음서의 예수님 (월)10:00,19:30

장소: 내곡로 123. 편입, 비대면 수업가능

문의: (010)7185-3431 / (010)9809-3431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마감: 2.9(수)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기간: 3월 ~ 12월 / (02)828-3600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전 녹화본)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

나는 만나이다? 우리는 만나이다?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국내 24년 전통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문 결혼 칼럼니스트
안동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신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비밀' 책 출간
M. 010.6571.3385 (카톡메시지 요청중)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안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메주 판매합니다
농업회사법인(주) 해밀원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메주 된장을 만듭니다.
1도(1장) 19,000원
010-9240-7533
유영구(다마스) 최은주(오틸리아)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대장 내시경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재희(베네딕도) 신부
2011년 1월 23일
- 김현수(바오로) 신부
2000년 1월 24일
- 엄택기(에밀레오) 신부
1952년 1월 27일

행사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기간: 3.2(수)~3(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2.17(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레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27(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교육 | 모임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재능 기부 전문상담사 모집

자격: 관련학과 석사 및 2급 자격 이상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제출: kim-sinbu@hanmail.net
마감: 2.11(금) / 문의: 250-3100

제13기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 모집

일시: 2.21(월)~25(금) 09:30~17:00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가톨릭신학원 수강생 모집

예언서, 요한계시록, 신론 등
다양한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며,
성경과 신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개강: 3.2(수) / 문의: 660-5105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취득반 모집

개강: 3.4(금) 등록접수중
시간: 금 18:30~22:20
토·일 13:30~21:50
자격: 19세 이상 누구나
문의: 대가대장례교육원, (010)2754-4404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채용 | 안내

한국SOS어린이마을(법)

동촌성모유치원 원장 채용

자격: 원장 자격 소지자
문의: 한국SOS어린이마을,
984-6928(홈페이지 참조)

칠곡가톨릭병원 외과 전문의 채용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전문분야: 유방·갑상선 초음파 및
시술(VAB), 하지정맥류 등
문의: 320-2079, 2122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위치: 달성군 논곡읍
설화명곡역 통근차량 2회 운행
대상: 남·여 요양보호사
문의: 616-2141 / 615-2141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2022년 상반기(임시 영업 중단)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면!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군(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재활정형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입구 1688-7667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 내 장 수 술 중 점 병 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39년 전통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련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